

# “골목골목 민심 청취 간절함 통했다” “내란 심판·정권 교체 열망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광주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 제공)

“광주의 민심은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지역 시민들의 민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시 서구을) 위원장의 분석이다.

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전국 투표율 1위(83.9%)를 기록하고,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 전국 2위(84.77%)를 달성해 광주가 민주당의 텃밭임을 재확인 시켰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광주시민들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선거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의 응원이 유달리 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의 역할도 컸다”고 전했다. 골목골목마다 돌며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청취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 전원에게 전화하기를 목표로 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모든 기초의원까지 선출직들이 매일 전화를 붙잡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 조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유례없는 시민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실제 광주지역에서 각종 직능단체에서 지지선언을 한 단체가 100곳이 넘었고 연인원만 3만7000명에 달했다. 그는 “보수 성향이 많은 직능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첫 발을 내딛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광주지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이었다”면서 “특히 광주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시행해달라는

21대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은 전국 투표율과 득표율을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광주와 전남이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셈이다.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 배경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함께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p의 근소한 차이로 패한 경험에 지역 민심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일사분란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투표율을 올린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부에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 시, 전남도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도 관심이다.

### 양부남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광주 투표율 83.9% 전국 1위  
광주시당, 단체 지지선언 유도  
발로 뛰고 전화하며 투표 독려  
지역 일자리 창출 실현 노력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일차리를 늘려달라”는 호소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그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지역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또 정부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 핵심공약을 꼭 넣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이 정부에서 이룰 수 있고 민주당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주철현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전남 투표율 2위·득표 1위  
지역민 실력 있는 대통령 원해  
투표구별 득표율 높이기 주효  
대통령 공약 실현 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11일 “호남 민심이 원했던 것이 대통령 이재명이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21대 대선에서 전남지역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유능한 대통령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전남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 83.6%를 기록,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2위지만,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85.87%로 2위 광주를 1%p 넘게 앞서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특히 전남은 지난 20대 대선때 기록한 투표율(81.1%) 넘어서는 등 뜨거운 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의원이 대선 기간인 지난날 여수 도심에서 기호 1번에 투표하라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 제공)

표 열기를 보여줬다. 그 열기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전남 유권자들은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확실한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민생 경제가 무너지다보니 실력을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에 민심이 뭉쳐서 높은 투표와 득표율을 기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호남의 민심도 민심이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의 선거 전략도 한 몫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개막했고, 이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전남 민심은 새 정부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호남이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호남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써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최근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인사를 보면서 지역을 배려한다고 느꼈다”며 “호남인들이 중앙정부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호남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무안공항 활성화, 전남 국립의대, 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등 전남 속원사업도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의원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희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끝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감사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약속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도당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 민주 “3대 특검, 성역 없는 수사”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속개해야”

### 여야, 사법부 향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검정·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연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여야의 ‘정의 사법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관계 당해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다.

또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

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에 일어난 모든 악행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불꽃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도부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취합하고 있고, 추천 절차는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

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만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이나 법, 힘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연기가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연 10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